

경제

전남 郡 고용률 68% 전국 1위 살펴보니

농어업 비중 높고 일하는 노인 많아

■ 1분기 전남지역 고용·실업률		
지역	고용률	실업률
전국평균	56.5	3.2
전남평균	56.9	2.8
시		
나주	66.1	1.3
광양	61.2	2.4
순천	56.7	2.1
목포	54.8	3.1
여수	53.8	3.9
군		
전국평균	63.4	1.6
전남평균	67.5	1.2
신안	76.9	0.2
해남	74.2	0.8
진도	74.2	0.8
완도	72.9	1.0
구례	71.0	1.2
보성	67.7	1.2
고흥	67.8	0.9
곡성	67.1	0.7
함평	66.6	1.4
장성	66.2	1.2
영광	65.2	1.5
장흥	65.1	1.4
무안	65.0	1.2
강진	64.8	1.0
담양	64.2	1.0
영암	61.8	1.4
화순	60.6	3.3

신안·해남·진도·완도·구례군 1~5위

임금근로자 비중 신안 25.5% 최하위

신안을 비롯해 해남·진도·완도·구례지역의 고용률이 전국 군(郡) 가운데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1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6개 시·군 가운데 시(市)지역 평균 고용률은 56.5%로, 군(郡)지역은 63.4%로 나타났다.

전남의 군지역 고용률은 6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 시지역은 56.9%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웃돌았다.

특히 전국 시·군을 통틀어 신안군의 고용률이 7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남군(74.2%), 진도군(74.2%), 완도군(72.9%), 구례군(71.0%) 순으로 전남지역 5개군이 전국 상위 5위권을 석권했다. 시별 고용률에서도 서귀포시(67%)에

이어 나주시(66.1%)가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남 군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농어업 비중이 높고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고령(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시 지역이 18.3%인 반면 군 지역은 41.4%였으며 여성취업자 비중도 군 지역이 43.3%로 시 지역(39.3%)보다 높았다. 특히 고흥군은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5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금근로자가 많은 시 지역의 취업자는 정년과 조기퇴직으로 고령층의 근로환경이 어렵지만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많은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층과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높다"며 "전남지역은 다른 군지역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데

다 농어업을 겸한 지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 시지역과 군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2.8%, 1.2%로 시지역은 제주 1.7%, 군지역은 경남 0.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전남은 또 군지역 성별 고용률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군지역 성별 고용률 평균은 남성 74.3%, 여성 53.2%였지만 전남 군지역은 남성 77.1%, 여성 58.9%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임금근로자 비중에서는 신안군이 25.5%로 순창군(23.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고용률을 근무지 기준으로 보면 영암군은 104.6%로 거주지 기준(61.8%)보다 42.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근 지역에서 근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통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신안군과 여수시의 고용률은 각각 76.9%와 53.8%로, 23.1%포인트로 전남지역 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비타민 워터 드세요” 23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비타민이 80% 이상 함유된 ‘비타민워터’를 선보였다. 비타민워터는 꾸준히 마시면 피부재생과 면역력증가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 <광주신세계 제공>

울 호남권 선도사업 지원금 675억 규모

光·하이브리드카 우수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대한 3차년도 지원금이 2차년도 675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지원단은 23일 “지식경제부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올해 모두 28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호남광역경제권에 대한 지원 규모는 2차년도 지원금 규모에서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광기솔기부품소재, 하이브리드카 부품소재, 태양광산업, 풍력산업 등 4개 분야로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 평가에서도 광기솔기부품소재 및 하이브리드카 우수평가를 받았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20개 프로젝트

에 대한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우수 프로젝트와 부진 프로젝트 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밝힌 바 있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원단 관계자는 “전체 지원규모가 2차년도 27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각 광역경제권에 대한 지원 규모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GS칼텍스 1000억원대 손실

일부 설비 고장 ... 13일째 석유제품 생산 차질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일부 설비가 열흘 전 고장이 나 일부 석유제품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23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제3중질유 분해시설이 지난 11일 고장난 데 이어, 제4등경유 탈황장치도 18일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회사 측은 제4등경유 탈황장치의 경우 지난 22일 수리를 마쳐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중질유 분

해시설은 현재 수리는 끝났지만 정상 가동은 25일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장으로 GS칼텍스는 중질유 분해시설에서 45만배럴, 등경유탈황 시설에서 35만배럴 등 총 80만배럴의 등유와 경유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한 손실액 규모는 9600만달러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GS칼텍스는 이번 일부 시설의 고

장으로 경유 등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 정부 비축유 87만배럴을 긴급 임차해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오는 25일이면 정상적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설비에 남아 있는 코크스 등의 찌꺼기가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유소에서 석유 제품이 모자라게 된 것이 GS칼텍스 공장의 고장 때문인데 회사 측이 책임을 주유소의 사재기로 몰아놓고 고장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이날 들어

15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석유제품 수요가 휘발유는 28%, 경유 40% 등으로 급등해 공급 물량을 맞추지 못했을 뿐, 공장의 고장 때문에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여수 공장에서 고장이 나기 전 이미 석유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해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40개 공장에서 일부 공장에서 고장이 날 수 있는 일인데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fmihang@

보해양조 임건우 대표 사임

임현우 사장 단독체제로

보해양조 임건우 대표이사·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임현우 대표이사·사장이 단독으로 이끌게 됐다.

보해양조는 23일 임건우 대표이사·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임건우·임현우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식했다.

임 회장은 보해양조 창업주인 고(故)임광행 회장의 장남으로 1985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 임 회장의 사임 시점은 검찰 압수수색 전인 지난 1일로 알려졌다.

보해양조는 2월 중순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로,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법적 보호한도 외 예금액을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또 검찰은 지난 17일 임건우 회장 자택과 보해양조 본사·경기 용인지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보해양조와 임 회장 측에 은행 자금이 불법적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임현우 대표는 임 회장의 동생(고 임광행 회장 3남)으로 2005년부터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았다가 지난 5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4년 전 불법대출 알고도 검찰서 무혐의 이유 뭔가

보해저축은행 비대위 성명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검찰청은 4년 전, 광주지검이 불법대출 사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상훈 비대위위원장은 “검찰이 4년 전 광주 세하지구 개발도면 유출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대출에 대한 의혹을 품었으나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시 불법대출 사실이 밝혀졌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2007년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 오문철 대표 등 3명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기소의견을 올렸지만 광주지검 특수부는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임동률기자 exian@

울 고추 계약재배 1038t

농협전남본부, 약정물량 전량 수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고추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계약 재배를 전년보다 27% 증가한 1038t을 추진한다.

농협 전남본부는 23일 영광농협에서 전남지역 24개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추 수급안정사업 활성화 위한 ‘2011년 고추 전남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날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계약재배 물량을 1038t으로 추진키로 하고 약정 물량의 전량수매와 상품성 제고를 위해 재배 조건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추 가격 및 수급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고추 수급안정사업 추진에 만전



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한재식 경제본부장은 “고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 재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품성 제고와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SDS, 포스코와 손잡고 대한통운 인수전 참여

삼성SDS가 포스코와 손잡고 대한통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삼성SDS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했다.

삼성SDS는 대한통운 지분 5%인 114만617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대한통운 주식 취득 목적에 대해 “사업협력을 위한 지분 취득으로 대한통운의 물류 IT(정보기술) 및 IT서비스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석화 “소송 해서라도 계열분리”

금호석유화학은 2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을 계열분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측은 형인 박삼구 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계열분리 작업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 등 3개사를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최근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의 지분율이

계열사 총족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박 회장이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등을 들어 이들 회사를 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는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최대주주로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055.86 (-8.04)
코스닥지수	464.62 (+0.85)
금리 (국고채 3년)	3.68% (+0.01)
원·달러 환율	1076.90원 (+3.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마이민보7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7월 1일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